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비전2000운동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도가 되자”

오늘 저녁 7시에 진군예배

그동안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
해오던 비전2000운동이 내일부터
28일(수)까지 10일 동안 전개
된다.

2000년대의 역군이 될 자녀들
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
관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의 사도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운동은 새벽기도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들로 진행될 예정
이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자
녀와 함께 순서순서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도제목

- 한 점의 불씨가 정글을 태운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불씨
우리의 기도가 역사의 새벽을 깨우리라
21세기를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1.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민족
 2. 교회 부흥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백성
 3. 거둔난 젊은이들이 구름같이 피어나는 사회
 4. 세계 복음화 대각성 운동의 산실
 5. 1억 3천만 일본인과 70만 재일동포 복음화
 6. 철의 장막 속에서 역사의 여명을 기다리는 2천만 북한동포
 7.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주옵소서, 하늘 문 여는 황금 열쇠를 주옵소서.

행 사 명	내 용
진군예배	일 시 : 8월 18일(주일) 저녁 7시 장 소 : 본당
새벽기도회	강 사 : 이종윤 목사 일 시 : 8월 19일(월)~28(수) 새벽 5시 장 소 : 본당, 갈릴리움, 베다니홀, 나사렛홀
천국시민 총동원의 날	일 시 : 8월 25일(주일) 장 소 : 본당, 갈릴리움, 베다니홀, 나사렛홀
금 식 일	일 시 : 8월 26일(월) 해있는 동안 현 금 : 북한 지교회 건립 기금으로 현금(9월 1일 교회설립38주년 기념예배시)
전도운동	남녀전도회 각 지회, 교회학교 각 부서별로 25퍼센트 성장 위한 전도운동 전개
승전감사예배	일 시 : 8월 28일(수) 저녁 7시 장 소 : 본당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 대회

다가오는 2천년대에 주역이 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1회 한·
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가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인 22일에
개최된다.

한국에서 102명, 일본에서 54

명의 청년들이 참석하는 이 대회
는 27일(화)까지 계속되면서, 참
가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
하고 시대적 사명을 새롭게 인식
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
하는 시간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
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

었노라”라는 주제와 “비전2000”
이라는 표어 아래 진행될 이 대
회가 은혜 가운데 치러질 수 있
도록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
야 할 것이다.

금주 목요일에 개최

시 간	8. 22(목)	8. 23(금)	8. 24(토)	8. 25(주)	8. 26(월)	8. 27(화)
4:30			기	상		
5:00~6:00		비	전	2000	운	동
6:00~7:00		개	인	경	건	
7:00~8:00		조	찬	금	식	
8:00~8:30		휴	식		식	
8:30~9:00		관	송		관	송
9:00~10:30	강의(1) 노봉원 목사	강의(3) 김상복 목사	각부주일예배 일어예배담방	강의(5) 이태웅 목사	평가회 공동선언문 채택	
10:30~11:00	휴	식		휴	식	
11:00~12:30	강의(2) 세이노 카즈히코 목사	강의(4) 요시모찌 아끼라 목사	주일3부예배	강의(6) 이시카와 코오지 목사	폐회예배	
12:30~13:30	오	관	금	식	오	관
13:30~14:00	휴	식		휴	식	
14:00~15:30	찬	송과간증	산	상기도	찬	송과대화
15:30~16:00	휴	식		휴	식	
16:00~17:30	분	파도의(1)	진	교	민	속촌담방
17:30~18:00	가	남촬영	휴	식	분	파도의(2)(종합)
18:00~19:00	개	회예배(충현목사)	만	관	금	식
19:00~19:30		관	송		관	송
19:30~21:00	관	영만찬	눈	물의 성회(1) 요시모찌 아끼라 목사	눈	물의 성회(2) 요시모찌 아끼라 목사
21:00~21:30	방	별	경	건	눈	물의 성회(3) 이종윤 목사
21:30	회		침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P군에게,

자네가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서 수술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
는 얼마나 놀랐던지...

뇌성마비 장애인인 자네가 얼마 전 시집을 출간했을 때만해도
나는 자네에 대한 기대와 놀라운 신앙적 투지에 감격하여, 하나님
께 감사하고 자네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였지. 시집이 나
온 지 3개월도 안되어 3판까지 발행되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자
네가 그 출판 수익금 전액을 우리 교회 복지마를 건설을 위한 헌
금으로 바치겠다는 약속의 편지를 보내와 나는 또 한번 자네를 보
는 시선을 달리 했네.

손과 발이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얼굴을 들려면 손
으로 이마를 바쳐올려야 하며, 한 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비
지땀을 흘려야 말의 실마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자네가 초, 중, 고
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친 것도 대단하지만, 칠전팔기하여 입학
한 대학에서의 성적도 사고를 당하기 전 중간고사 결과가 전과목
A학점이라니... 자네야말로 오늘날 세상을 쉽게만 살려는 이들
에게 큰 교과서가 아니겠는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없
었다면 나도 평범한 하나의 불쌍한 장애인으로 일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 했겠요.”라고 고백한 자네의 수기 중 한 마디는 이 시대
의 어느 훌륭한 설교자의 가르침보다도 감동적인 것이라 생각하
고 감사를 드렸네.

사랑하는 P군,

자네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충현의 가족들은 기도하고 있으며
부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희망을 잃고 해배하는 이 나라의
장애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네.

8. 18

주 안에서 이 종 윤 목사

교회 설립 38주년을 기념하여 교회학교에서 각종 행사 계획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38주년 었다. 이에 그 세부적 사항들을
을 기념하여 교회학교 학생과 회 김도 실시키 위하여 “교회설립 38
원이 참여하는 성경암송대회, 선 주년 기념 교육부서 행사 조직”
교우변대회, 성극경연대회를 교 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대 회 장 : 이종윤 목사

•부대회장 : 조선근 장로, 김차생 장로, 김양개 장로

*성경암송대회

준비위원장 : 손경수 장로

서 기 : 박영식 장로

회 계 : 김재명 장로

총무부장 : 최무길 장로

심사부장 : 박용삼 장로

진행부장 : 임필성 장로

*선교유변대회

준비위원장 : 장은원 장로

서 기 : 이 훈 장로

회 계 : 김종구 장로

총무부장 : 송환장 장로

심사부장 : 조인제 장로

진행부장 : 오정현 장로

*성극경연대회

준비위원장 : 박승준 장로

서 기 : 노문환 장로

회 계 : 정광호 장로

총무부장 : 윤성철 장로

심사부장 : 김천재 장로

진행부장 : 하대선 장로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13:31,32)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인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불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몹시 서글프셨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도 마지막 가르침을 계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네 번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다섯 번 나옵니다.

1. 영광의 의미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영광”을 “독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독해이”라는 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무엇처럼 보인다, 무엇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의 좋은 의견이나 좋은 것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의미를 쉽게 풀어보면, “찬양한다, 존귀히 여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의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견해란 신앙 교리가 바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께서도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요13:31)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란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길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나간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13:32)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십자가란 저주이고 죽음이고 고난이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란 영

광과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은 그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광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속죄하시고 구속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마3:17). 예수님께서 그 때에 이미 영광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이 바로 영광을 얻을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언제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순간에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가 자기를 팔기 위하여 어두움으로 나가는 그 시간에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저가 나간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하면서 “문”이라는 단어를 생략해버렸습니다. 가롯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갔을 때는 밤이었습니다(요13:30). 그러므로 31절의 말씀은 가롯 유다가 나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배신의 잔을 주님께서 마시어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생애의 마지막장을 자기가 넘기는 순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3. 십자가의 의미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가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이며 역사의 의미입니다. 모든 역사가 십자가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없는 역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우리들의 생애는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한다 하더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의 의미이며, 역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세상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가운데 십자가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고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바이고 인류 모든 족속들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을 받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 가져온 불순종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물리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십자가는 의미요, 보람이요, 핵심이요,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급회전시키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옥으로 가던 우리들을 완전 회전시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아담은 불순종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신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키시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전히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받으시고 둘째 아담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자식이 되어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서 헤멜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를 깨치는 것입니다. 사단의 힘이 얼마나 강

한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백전백패(百戰百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구원의 여망(餘望)이 생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지금 나올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십자가 까닭에 오늘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십자가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한 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져버린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추앙받은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용서가 정당화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죄인인데 우리들이 뜻을 배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시기보다 순결한 눈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하심이 십자가 상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섯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신 사랑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인하여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보리산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5:8)

비전 2000운동

비전의 새벽을 열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송 태 근 목사
(비전2000운동 기획참모)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마르크스의 주장을 옳든 그르든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경을 해석만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국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초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인식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이들을 고소했다. 영어 성경에는 이를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실감있게 번역했다. 어쩌면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명쾌히 지적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병든 민족과 병든 세상과 병든 역사 그리고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발을 갈아 엎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어도 안된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한국 교회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묵격되어져야 한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부수고 찢개고 고치는 역사가 있다. 이 토양을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들에게 확실히 경험시키고 물려주는 것이 비전 2000운동의 지름길이다.

둘째는 기도 운동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비전 2000운동은 바로 기도 운동이어야 한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2000년대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할 때에 2000년대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으리라.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껏 살아온 그 어느 세대보다 물질적 풍요가 있기에 행복하며, 이제껏 살아온 그 어느 세대보다 정신적 빈곤함이 있기에 가엾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괴물 같은 세월을 살아오고 있다. 그들은 지금 거

리에서, 캠퍼스에서, 혹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다. 동양적 윤리관의 부모와 서양적 윤리관의 상황에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갈등의 구조는 이들 스스로 넘기에는 한계요 하나의 문턱이다.

우리 모두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가을의 추수를 기대할 수 없다. 어쩌면 우리 기성 세대는 2000년대를 펼쳐갈 열매들을 키워내야 하는 발가는 농부들이다. 그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가꾸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민족과 앞날의 세상은 희망이 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숙연하고도 장엄한 역사의 대열에 충현의 성도는 낙오 없기를 바란다. 말씀의 검을 갈고, 기도의 동력으로 새벽을 깨워 광야에 길을 내는 힘찬 역사를 준비하자.

충현살롬경로대학 9월 12일 개강
현재 새 학기 등록 접수 중

충현살롬경로대학(학장 이종운 위임목사)의 91년도 제2학기가 9월 12일 개강함에 따라 현재 2학기 등록을 받고 있다.

충현살롬경로대학은 60세 이상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의 등록도 환영하

고 있다. 등록금은 만원이라고 한다.

아울러 2학기 준비를 위하여 8월 29일 오전 11시에 갈릴리움에서 임시소집을 할 예정이다. 임시소집일의 회비는 2천원

지교회 교역자 초빙

9월 8일엔 4개 지역에 교역자 파송

무교회 지역에 지교회를 설립하여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는 경북 봉화 지방에 2개의 지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학산충현교회(경북 봉화 춘양 학산)의 담당 교역자로 홍익표 전도사를, 교양충현교회(경북 봉화 명호 교감)의 담당 교역자로 김후용 전도사를 청빙하였다.

한편 금년 들어 설립한 지교회 9월 8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있다.

이날 파송되는 교역자는 민준화 전도사(서송원충현교회), 김영일 목사(중산충현교회), 홍익표 전도사(학산충현교회), 김후용 전도사(교양충현교회) 등 모두 4명이다. 이로써 우리 교회의 지교회는 모두 9개로 늘어났는데, 민족 복음화의 교두보라고도 할 수 있는 지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을 위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사랑부, 에바다부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말씀 전파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학교인 사랑부(부장 강모용 장로, 지도 이흥성 목사)와 에바다부(부장 조인재 장로, 지도 김성운 목사, 부지도 임태주 전도사)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말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방법을 채택,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사랑부가 비디오를 상영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오늘은 에바다부 학생반에서 역시 비디오를 상영한다.

사랑부와 에바다부를 통하여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가 더욱 활발히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일은 거룩하게
생활은 검소하게
질서는 내가 먼저

독자의 난

어머니의 유산

하 대 선 장로
(초등4부 부장)

여기저기서 통일이 가깝다는 기쁜 소식들이 들려 오고 있다.

“몇일 동안만 피신했다가, 곧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을 뒤에 두고, 여장을 꾸릴 겨를도 없이 빈 손으로 떠난 피난길.

그 “몇일”이 어느덧 40년의 세월로 이어진 지금에도, 이 64세의 불효자는 문득문득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어머니를 그리며, 남몰래 눈시울을 적시곤 한다.

가난하지만 이름있는 가문의 후예로 자라선 탓인지, 유난히도 가정교육이 엄하시던 어머니는 철없이 그 뜻을 어기는 못난 아들

을 어쩌다 때로 다스리시고는 당신도 함께 엎드려 우시는 그런 분이셨다.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 사범학교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는 찢찢이 빈 깡통을 모아 두셨다가, 인편이 있을 때마다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을 밤새워 만들어 담아 보내셨고, 아들은 그 크고 작은 깡통들을 받아 들고, 식탁을 대할 때마다 섬금을 울리는 모정에 목이 메여 얼마나 눈물로 밤백이된 밥을 먹었는지……

피난길에 오르는 날아들에게 갈아 입을 옷 한 벌 꾸려 보내지 못하신 것을 두고두고 마음 아파하

실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기에 자식에게는 더욱 가슴이 아려오는 듯한 40년 세월이었다.

그러나, 이 불효자가 아마도 지금 은 하늘나라에 가 계실 어머니를 이토록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욱 고맙게 생각하는 까닭은, 그분이 자식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귀중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산을 물려 주셨기 때문이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에 주일마다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까지 배려다 주시던 어머니의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아침, 저녁으로 간

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던 그 애절한 음성이 타향에서도 언제나 가슴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어머니의 뜨거운 믿음으로 인하여 아들은 주님 안에서 늘 고향의 부모형제와 함께 살 수 있었으며,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과 행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약한 인간이기에 아들의 기도는 매양 이리석기만 해서, ‘오! 주여 할수만 있다면 단 한 순간이라도 살아 계신 어머니를 그리운 옛집에서 만나 얼씨안고, 그 동안 모질게도 참아 왔던 울음이나 실컷 터

뜨리게 하옵소서……’ 하고 매달리면, 자비하신 하늘의 음성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엄숙히 타이르셨다.

그렇다. 이제는 조용히 손 모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빌리라. 그리하여 이 민족의 통일의 날도 앞당겨 주시도록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자. 그리고 두고 온 고향의 그리운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정성껏 선물도 준비 해야지. 어머니가 물려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선물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저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시키시고 손을 잡게 하신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감사했다. 앞으로 이 신학교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졌다. 한국 교회가 신학교 건립을 위한 물질 지원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르칠 교수진, 그것도 복음주의적 성경관을 가진 이들이 해외에서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신학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셨다. 소피아에 거주하는 교인들이 선교사 파송을 요청해 온 것이다. 저 옛날 사도 바울을 부르던 마게도냐(오늘날 마케도니아는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세 나라로 각각 3/5, 1/5, 1/5씩 나뉘어 있다) 사람들의 부름으로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신학교 육도 지원하고 우리 동포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불원간에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린다.

수많은 침략과 약탈의 대상이 되었던 타인지 국민 모두가 양같이 순하게만 보였다. 우리 일행은 마게도냐를 찾아갔다.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했지만 함께 둘러서서 기도하며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들을 수 있고 바울처럼 웅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 동구라파 선교여행기 ②

마게도냐의 부름에 응답한 한국 교회

이 중 윤 위임목사



우리 모두의 눈은 눈물로 땀방이 되어 기도를 마친 후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루마니아엔 안드레가, 그리고 이 땅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찾아 왔던 곳이 아닌가. 사도들의 발자국이 닿았던 곳에 복음의 꽃이 다시 피도록 할 사명이 한국 교회에 주어졌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진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서구의 파리라는 별명을 가진 아름다운 도시다. 토요일 오후 늦게 도착한 우리는 손님을 아끼면서 활동을 서둘러야 했다. 4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 오신 김치(KIMCHI) 동문 목사님을 만난 것도 기뻐했지만 그가 자기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주일 아침과 저녁에 찾아간 두 개의 개혁 교회들은 우리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설교를 통해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 운동과 우리교회의 흥해작전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격려할 때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새벽 5시에 교

회에 오느냐고 주저하다가도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자기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사를 드렸다. 한국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민족과 흥해를 갈랐다는 체험적 간증을 함으로 교회를 이기고 자유를 얻은 성숙한 성도답게 저들은 기도밖에 다른 능이 없음을 공감케 된 것이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젊은이들이 계속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오고 있으며 주일에 3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기고 이제는 알콜 중독자, 실업자, 재소자나 고아에게까지 사랑의 구제 손길을 펼칠 만큼 교회가 힘을 얻게 된 모습을 보면서 헝가리의 복음화 운동이 더욱 빨라지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방의 기운과 함께 거짓 교훈과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 종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와 더불어 대책의 시급함을 감지하면서 또 하나의 내적 전쟁을 치루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더욱 우리를 당혹케 한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물이레로 방언과 치유 은사

가 한국 교회의 중심 신앙인 듯 소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누구의 영향이었는지를 따지기 전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는 거짓 영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도 자던 잠을 깨고 해야 할 것을 다짐해보았다.

프라하에 봄이 오겠는가? 묻던 지방 기자들의 의구심이 지금의 프라하를 보는 이들에겐 말끔히 씻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동안 착각에 빠질 뻔했다. 한달의 꽃송이들이 우리 일행 모두에게 안겨졌기 때문이다. 프라하의 봄소식이 틀림없다. 교인들과 더불어 출연 나온 김치(KIMCHI) 동문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 가톨릭 교회의 묵은 잔재들을 관광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죽은 교회가 문화재의 일부로 보존되어진 것이 웅장하다기 보다는 웅장해 보였다. 도시의 곳곳에 자유의 기운이 넘쳐 흐르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제법 힘차게 보였다. 우리는 바스로 약 한 시간 가량 남쪽으로 향해 달려 피제이라는

조그마한 도시로 갔다.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차 안에서 먹으면서 창문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의 농촌 풍경을 내다 보았다.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집회에 이미 좌석이 가득 채워졌다. 밤 9시가 훨씬 넘도록 예배는 계속되었다. 필자의 설교가 길어서가 아니라, 설교 후 그곳 목사님의 간절한 요청으로 성도들의 신앙적 궁금증을 모두 해결이라도 하려는 듯 자유토론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성경 내용은 물론 신앙 생활 문제, 심지어는 개인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국 교회 특히 충청교회의 여러가지를 묻고 대답했다. 우리 일행은 언제부터 전파해졌는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자제로 특별 찬송도 여러 차례 부르고 저들과 함께 즐거워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회가 끝이 났다. 다시 교회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좀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계획했지만 우리 일행이 너무 피곤해서 우리는 각각 성도들의 집으로 민박하기 위해 헤어졌다. 그 밤은 야금의 들배를 연상케 했다. 필자는 교회당 뒷층 한 골방에 의자를 모아 침대를 만들고 그 앞에 꿇어 엎디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밤이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말자.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기로 하자.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일에 협력자가 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 따위는 생각지 않기로 하자. (계속)

아름다운 소피아

김 연 이 전도사
(출판부, 중등1부 지도)

바울의 열정에	사냥꾼의 울무에서
복음이 꽃핀 곳	벗어난 새처럼
	자유의 빛을
아름다운 성전에	온 몸이 받은 너
우상이 가득하고	
뜻도 모르는 의식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	신학의 탐을
붉은 마수는 자라	높이 세우고
너의 목을 조였다.	가난과 고통과
	영적 기갈을 해결할
음울과 회한의	신실한 종들을
긴 터널을 통과하고	토해 내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 : 58)

91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 봉사할 인재들을 양육하고 있는 충청장학회(회장 최대원 장로)가 91년도 하반기 장학생들을 선발한다. 장학회는 소석장학생, 충청장학생, 위탁장학생들을 일차적으로 선발하였는데, 지난 학기 성적을 검토한 후 B학점 이상인 학생들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케 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8월 25일까지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의회 소집

교회는 제7대 안수집사 및 제35대 시무권사 후보 선발을 위한 공동의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일 시 : 8월 25일 4부 예배 후
- 장 소 : 본당
- 참가자 : 충청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한편 신학원(총신, 합신) 재학생 가운데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충청신학생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희망자들은 이력서(사진 첨부), 91년도 1학기 성적표, 재학증명서 한 통씩을 9월 1일까지 장학회(소석관 103호)로 제출하기 바란다.

소석장학생

황옥진, 송준엽, 이재호, 박성곤, 이현주, 김현정, 정윤성, 최경아, 송민선, 이정은, 이미리, 조

성희, 안광영, 김정호, 오정성, 김성관

충청장학생

최연희, 김경희, 박충열, 정재용, 김성욱, 홍경호, 장인순, 이오복, 전정구, 정문지, 서일우, 이준우, 김훈정, 김선화, 이요한, 박동석, 황승원, 홍준식, 임필아, 윤정미, 구혜경, 홍성욱, 김정직, 황가영, 강선미, 고유미, 권오준, 신익수

위탁장학생

박경현, 김미성, 박상현, 이상권, 백원옥

광야의 소리

- ◎ ... 순교를 각오하고 지켜야 할 것은 믿음뿐이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예수로 복한 삶을 살자.
- ◎ ... 무덤고 짜증나는 더위가 뒷뜰에서 방황. 어김없이 찾아

아오는 하나님의 가을을 막을 자 누구랴.

◎ ... 비전2000운동으로 미래지도자들을 깨울 예정. 나뭇잎 다짐하며 새벽을 가름시다.